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고살아야 할 영원한 혁명정신

김 봉 덕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원동력으로 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백두의 녂과 기상을 안고 혁명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에도 변함없이 심장속깊이 안고살아야 할 영원한 혁명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고살아야 할 영원한 혁명정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인 항일혁명선렬들이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전 력사적과정에 구현되어 승리만을 떨치게 한 고귀한 혁명정신이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인 항일혁명선렬들이 창조한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혁명가가 지녀야 할 절개와 지조, 억척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무비의 희생성, 헌신성을 지니고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도 웃으며 달리였고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불렀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어떤 안일과 해이, 유혹을 물리치며 자그마한 비관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무조건 결사관철하였다.

이 과정에 항일혁명선렬들의 심장속에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끝까지 싸우는 여기에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정이 있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있으며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억척같은 신념이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그것은 지워버릴수도 불태워버릴수도 없는 굳센 각오와 의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조국해방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필승의 신념과 기개를 지니고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마다에서 높이 발휘된 우리 인민의 강毅한 정신력의 근본바탕으로 되었으며 세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줄기차게 계승되어왔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

을 뚫고 위대한 승리만을 이룩하여온 자랑스런 투쟁로정으로 빛나고있다. 항일혁명선열들이 창조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정신력의 원천이었을뿐아니라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역사적승리를 가져오게 한 힘있는 원동력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구현하여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과 천리마의 정신, 혁명적군인정신과 강제정신과 같은 위대한 혁명정신들을 창조함으로써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령도 따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에게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 혁명의 가장 간고한 시기에 항일혁명선열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조선혁명의 전력사적과정에 구현되여온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오늘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치며 지식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계속 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고살아야 할 영원한 혁명정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을 계승하고 빛내이는것이 후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고 혁명의 피줄기를 순결하게 이어나가기 위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계승하고 빛내이는것은 우리 혁명의 새 세대들이 혁명선열들앞에 지닌 숭고한 도덕의리로 된다.

혁명선열들에 대한 도덕의리는 그들이 창조한 귀중한 유산과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혁명선열들이 창조한 귀중한 유산과 업적을 빛내여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빛내이는것이다. 그것은 혁명선열들이 이룩한 모든 업적의 근본바탕에 놓여있는것이 바로 그것을 창조한 선열들의 혁명정신, 투쟁정신이며 따라서 혁명의 새 세대들이 혁명선열들에게서 넘겨받아 계승해나가야 할 유산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유산이 사상정신적유산이기때문이다.

혁명의 새 세대들이 항일혁명선열들이 창조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구현하여 오늘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나갈 때 혁명선열들의 그 정신도 더욱 빛을 뿌리게 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계승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순결하게 이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피줄기를 순결하게 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것이다.

혁명선열들이 창조한 투쟁정신을 그대로 계승해나간다는것은 곧 혁명의 전세대와 후세대의 정신이 하나로 이어져 혁명에 대하는 태도와 립장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것을 말한다. 새 세대들이 비록 혁명의 시기와 환경은 달라도 하나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혁명선열들의 넋과 기상으로 살며 싸워나갈수록 혁명의 대는 굳건히 이어지고 그 순결성이 고수되며 혁명은 선열들의 념원에 맞게 끝없이 승승장구하게 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고살아야 할 영원한 혁

명정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앞으로도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치고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정신이기때문이다.

정신력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높은 열정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원천이며 확고한 각오와 불굴의 의지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정신력은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정, 강毅한 혁명적의지와 결사의 각오를 배양하고 발휘하는 원천으로 된다. 때문에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강毅한 정신력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수행될 때 더욱 빠른 속도로 전진하며 완성되어나간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살아야 한다.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혁명의 길은 순탄하지 않으며 시련과 난관이 동반된다. 그리고 그것은 력사의 반동들과 계급적원수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 진행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대결전이다. 따라서 혁명은 완강한 공격정신과 견결한 투쟁정신이 없이 승리할수 없다.

사람들이 혁명의 길에서 혁명가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지니고 혁명에 충실하자면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야 하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정신적무기가 다름아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제재소동으로 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리고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에서 그칠사이없이 벌어지는 핵전쟁연습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한편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변질시켜보려는 적들의 끈질긴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계속되고있으며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비렬한 방법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엄중한 도발행위가 계단식으로 확대되고있다.

말그대로 우리 혁명앞에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주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없이는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나갈수 없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없다.

력사는 이미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의지가 부족한자들이 가당게 되는 종착점은 투항과 변절의 길이며 혁명에 대한 배신으로 값비싼 대가와 응당한 징벌을 피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튼튼히 결속시키고 그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힘의 원천이다.

우리 혁명은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어 멀리 전진하였지만 백두의 행군길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혁명선렬들의 념원이 꽃피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력사적과제가 나서고있다.

이 력사적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오늘에도 래일에도 억세게 틀어쥐여야 할 사상적무기가 바로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항일혁명선렬들이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전 력사적과정에 구현되어온 완강한 공격정신, 백절불굴의 견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우리앞에 나선 과제가 아무리 방대하고 아름차더라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그것을 사상정신적원천으로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이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영원히 안고 살며 투쟁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